

시골의 齒科醫

얀·비크토루스 画 (1654年作)

17世紀의 外科學은 解剖學이나 生理學의 進歩와 步調가 맞지 않았다. 手術을 安全하게 하기 위한 수단 즉 麻酔와 感染, 예방은 達成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한사람의 例外 말고는 社會的 學問的으로 醫師의 水準에 達해 있지 않았다. 그는 「샤를·프랑소와·페릭스」이며, 그는 「루이 14世」의 痔瘻를 手術해서 成功을 거두어 外科에 대한 國王의 지원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外科醫는 먼저 理髮師와 경쟁하고, 다음에는 醫師와 反對해서 理髮師와 손을 잡은 時期가 있다.

이 그림은 시골의 齒科醫도 普通的 醫師, 理髮師 兼 外科醫, 藥劑師, 自稱 拔齒醫등,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었다. 「앙스테르담 國立博物館 소장」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93-6671